

봉선동 카페, 월 1598만원 매출 내야 유지

기업고객 비금융서비스 플랫폼 'KB 브릿지' 활용 상권분석

남구에 카페·금호지구 치킨집 창업 투자비용 등 시뮬레이션 3% 수익 내려면 하루 카페 53만원·치킨집 46만원 매출내야 전국 평균 창업 비용 카페 1억9998만원·치킨집 1억3458만원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카페 창업을 한다고 가정할 때 매달 3% 이상 수익을 내려면 월 1598만원 매출을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 금호지구 치킨집을 차리면 하루 46만원, 월 1389만원을 벌어야 한다.

이 같은 결과는 8일 기업고객 비금융서비스 플랫폼 'KB 브릿지'를 활용 분석한 '상권분석 정보'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광주일보가 봉선동에 카페를, 금호1동에 치킨집을 낸다고 가정하고 초기 투자비용과 목표 회수 기간 등을 이 시스템에 입력했다.

먼저 카페와 치킨집을 차리기 위한 초기 투자비용으로 1억원을 잡았다. 투자비용에는 인테리어와 가맹관리비 등이 포함됐다. 또 보증금은 5000만원, 월세 등을 더한 월 고정비용은 400만원, 인건비 120만원, 대출금 1억원으로 설정했다.

1회 결제 단가는 카페 5000원, 치킨집 2만원으로 정했고 결제 건수(판매 건수)는 카페와 치킨집 모두 30건으로 잡았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을 분석해 보니 월 3% 수익을 내려면 카페에서는 1598만원, 치킨집에서는 1389만원 매출(한 달 30일 기준)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의 경우 하루 매출 53만원, 하루 결제 건수는 61건에 달해야 했다.

손해는 보지 않는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하루 매출 33만원, 월 매출 998만원은 올려야 한다.

금호지구 치킨집의 경우 3% 수익을 내려면 하루 매출 46만원(결제 건수 21건), 월 매출 1389만원을 달성해야 한다.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월 매출은 985만원(하루 매출 33만원)이었다. 손해가 나지 않으려면 적어도 하루에 통닭 15마리는 팔아야 한다는 말이다.

'상권분석 정보'에 따르면 봉선동에 등록된 음식점 35개 가운데 8개가 커피전문점으로 분류됐다.

이들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지난 9월 기준 989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

■ 평균 투자비용과 월 예상 매출 (단위: 원)

비용항목	커피전문점	치킨집	창업 가정 비용
초기 투자비	1억9998만	1억3458만	1억
보증금	5322만	3581만	5000만
월 고정비용	419만	617만	400만
인건비	113만	55만	120만
대출금	9999만	6728만	1억
1회 결제 단가	8686	2만2151	5000(카페)/2만(치킨집)
1일 결제 건수	38건	15건	30건
월 예상매출			1598만/1389만

*카페는 봉선동·치킨집은 금호지구 창업 가정

되기 이전인 지난 2월(1669만원)에 비해 매출이 40.7%(-680만원) 급감했다.

금호1동에 영업 중인 음식점은 138개로, 이 가운데 3개 점포가 후라이드·양념치킨을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매장 평균 월 매출은 2071만원인데, 점포가 1곳 뿐이었던 지난 2월(2177만원)에 비해 7개월 새 매출이 4.9%(-106만원) 감소했다.

한편 전국 평균 창업 투자비용은 커피전문점은 1억9998만원, 치킨집 1억345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자영업자는 점포 보증금을 카페 5322만원, 치킨집 3581만원씩을 각각 냈다. 월 고정비용은 카페 419만원, 치킨집 617만원이 들어가고 있었다.

인건비는 카페 113만원, 치킨집 55만원으로 조사됐다.

카페 창업자는 평균 9999만원의 대출금을, 치킨집은 6728만원의 빚을 지냈다. 1회 평균 결제 단가는 카페 8686원, 치킨집은 2만2151원이었고, 1일 결제 건수는 카페 38건, 치킨집 15건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콘진원, 콘텐츠산업 결산·전망 세미나 온라인 개최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이하 콘진원)은 '콘텐츠산업 2020년 결산과 2021년 전망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9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콘텐츠산업의 한 해를 돌아보고, 2021년을 전망하고자 기획됐다.

콘진원은 올 한 해를 관통하는 콘텐츠산업의 키워드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콘텐츠산업의 태세전환' '세계를 열광시킨 월드

베스트 K-콘텐츠' '장수 콘텐츠 IP의 재해석'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콘텐츠 분야의 디지털 뉴딜'을 꼽았다.

세미나 1부에서는 콘진원 산업정책팀 박혜태 팀장이 2020년 키워드에 대한 분석을, 미래정책팀 송진 팀장은 내년도 콘텐츠산업의 키워드를 발표한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콘텐츠산업 변화를 분석하고, 2021년 콘텐츠산업을 전망할 계획이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신보 '소상공인 창업교실' 매출 상승 효과



전남신보보증재단 '2020년 소상공인 창업교실' 수료생들이 5개월 과정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신보 제공>

성과분석 업체 72% 매출 상승

전남신보보증재단은 5개월 동안 진행한 '2020년 소상공인 창업교실'을 이달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신보는 지난 7월 전남도로부터 창업교실 사업을 위탁해 진행했다. 교육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올해는 소상공인 수료생 16명을 배출했

다. 이들은 지역에서 성공한 소상공인으로 부터 멘토링 교육을 받았다.

전담 전문가(매니저)를 배치하고 세무·노무·온라인 홍보·심사과정 등 맞춤형 심화교육도 이뤄졌다.

전남신보는 성과분석이 완료된 업체 가운데 72%가 컨설팅을 받고 매출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꽃도 비대면 거래...aT '온라인 매매시스템' 구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화훼 온라인 매매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7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aT 화훼사업센터는 출하자와 중도매인이 판매하고 구매할 꽃의 정보를 직접 등록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화훼류 온라인 매매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상시 출하가 가능하도록 했

으며, 특정 요일과 장소에서 이뤄지는 현장 경매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했다.

aT는 이번 비대면 매매 도입으로 농가 및 중도매인의 사전거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훼류 매매시스템은 양재동 화훼공판장 대표 홈페이지(flower.at.or.kr/yfmc)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

조계현 원장의

특 특 창업이야기



비대면 시대 증가하는 창업자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다. '혹시나 조만간 나아지려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제법 긴 적자상황에도 어렵게 사업장을 꾸려오던 많은 자영업자들은 다시 겨울 보다 더 차가운 매출 한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길거리에는 임대 현수막이 붙은 점포들은 더욱 늘어가고 있고 탄탄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형 브랜드들도 코로나19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적자 폭이 커져서 결국 매장 폐업을 했다는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 종종 들려온다. 올 한 해 창업시장은 냉각기를 거치고 있고 이로 인해 창업자들이 대폭 줄었을 거라고 예상하기 쉬운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달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3분기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전년과 같은 기간 보다 창업기업들이 13.3%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또한 3분기가 아닌 1월부터 9월까지의 창업기업의 수는 115만2727개로 전년 동기 대비 21.9%가 증가했다고 한다. 체감경기가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데도 창업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필자의 소견으로는 비대면 세상에 대한 빠른 적응과 백신, 치료제들의 개발 소식, 기업들의 고용인원 감소, 사회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그리고 경제활동 회복세와 거리두기 완화 정책 등이 맞물려 창업자들이 창업동기를 끌어올렸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3분기 창업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창업증가세를 청년창업과 실버창업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연령대별로 3분기 창업동향을 다시 살펴보면 청년층(39세 이하)이 전년 대비 19%가 증가했고 특히 30세 미만 창업자들이 29.9%로 크게 증가해 평균 창업연령이 대폭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평생 직장개념이 무너지면서 청년층들의 사회 진입경로가 취업이라는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방식인 창업에 임하는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이기도 하다. 30세 미만의 청년창업자들이 창업한 업종들 중에서 증가세가 큰 업종들을 분석해보면 도소매업은 47.6% 증가했고 숙박, 음식점업 13.1%,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38.3%, 정보통신업이 29.9% 증가했다.

특히 도소매업 창업의 증가폭이 컸는데 이는 비대면 시대에 오히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기반으로 한 오픈마켓, 소셜마켓 등의 입점이 증가한 효과가 컸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유행은 곧 휴식이라는 개념이 백세인생이라는 시대를 맞이해 무너지고 여전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젊은 60세 이상의 실버세대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버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져서 실버창업자들이 전년 동기 대비 15.8%가 증가했다. 실버창업자들이 창업한 주요 업종들과 증가세를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16.2%, 제조업 35.5%, 운수창고업 20%,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이 39.3% 증가했다.

청년창업과 실버창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청년창업자들은 소자본과 열정, 패기를 주요 자산으로 하고 실버창업은 경험과 자본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주요 자산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창업자들과 남성창업자들의 증가세를 살펴보면 여성창업자들은 14.1% 증가했고 남성창업자들은 12.7%가 증가해 창업시장에서 여성이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술창업 분야에서도 여성창업자가 11% 증가했고 남성창업자가 7.7% 증가하는 데 그쳐서 향후 IT업계도 여성들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모든 긍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숙박, 외식업과 교육서비스업 등 다중이용시설형 창업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